

## 5. 면접 및 구술 고사 태도

### 가. 면접 태도

면접은 면접 내용에 대한 응답만을 평가하지 않는다.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세와 태도, 용모, 예의 등이 면접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면접을 하게 될 때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첫째, 면접실에 들어갈 때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가서 간단한 목례를 한다.

둘째, 면접 선생님이 지시하는 자리에 바른 자세로 앉는다.

셋째, 손은 무릎에 얹고 눈은 질문하는 면접 선생님의 얼굴을 부드럽게 쳐다본다.

넷째, 질문을 받았을 때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침착한 자세로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답변한다.

다섯째, 만약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경우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정중히 부탁한다.

여섯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일 경우 다른 문제를 부여받을 수 있으면 다른 면접 문항을 요청한다. 이 때도 정중히 말씀드린다. 다른 면접 문항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잠시 생각하고 정리한 후 최선을 다하여 성의있게 답변한다.

일곱째, 준비하여 암기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면접에 응답하지 않는다.

여덟째, 속어, 은어, 유행어를 사용하지 말고 표준어를 사용한다.

아홉째, 자신 있게 또박또박 대답하고 말끝을 흐리지 않는다.

열째, 올바른 경어를 사용한다.

열한번째, 면접 도중 감정의 변화를 자제한다. 예를 들어 예상했던 질문이나 불쾌한 질문을 받았다 하여 얼굴에 반감거나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황당한 질문이 부여되었다 하여도 당황하지 말고 냉정히 면접에 임하여야 한다.

열두번째, 면접 도중에 면접 위원이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 갑자기 질문을 하였을 때 당황하지 말고 재치있게 답변한다.

열세번째, 면접 도중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예를 들어 손을 비빈다든지 다리를 떠다든지의 행동을 말한다.

열네번째, 집단 면접의 경우 본인의 면접이 끝났다고 헤이해지지 말고 다른 학생의 면접도 경청한다.

열다섯번째, 면접이 끝났다는 말이 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른 자세로 나온다.

이상은 면접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면접이 끝나고 나오는 과정까지에서 지켜야 할 태도를 예시하였으나 학생은 학생들이 스스로 면접 위원에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태도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면접 점수를 얻기 위한 의도적인 태도가 오히려 면접 위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 나. 구술고사 및 집단 토론 태도

구술고사도 면접의 한 방법이므로 면접의 태도를 따른다. 다만 학생이 응답한 내용에 대한 면접자의 보충 질문이 따른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질문의 요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응답을 하기 위하여 면접자의 질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

집단 토론의 경우는 토론하는 능력뿐 아니라 토론을 하는 태도도 평가 내용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집단 토론 태도를 지녀야 한다.

첫째, 자신의 생각을 간단·명료하고 논리 정연하게 쉬운 말로 말한다.

둘째, 다른 학생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셋째, 본인과 같거나 다른 견해를 가진 학생에게 가능한 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갖지 않는다.

넷째, 본인과 다른 견해에 대하여 질문할 때 다른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다섯째, 질문을 할 때는 초조하거나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질문한다.

여섯째, 다른 학생의 질문에 응답할 때, 간단·명료하게 답한다.

일곱째, 본인의 견해와 다른 학생을無理하게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여덟째, 토론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즉 다른 학생을 배려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아홉째, 토론에 참여하여야 한다. 토론에서 겸양지덕이나 침묵이 좋은 것은 아니다.